

# IT거인 삼성SDS, '고객사 디지털 전환' 길잡이 나선다

삼성SDS, 리얼 2019 행사 개최  
노하우·IT 신기술 역량 집대성  
물류사업 프로세스 사례 발표도



후원표 삼성 SDS 대표이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삼성SDS 'REAL 2019' 미디어세션에 참석해 노하우와 기술 역량이 집약된 'Digital Transformation Framework'를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삼성SDS는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리얼(REAL) 2019' 행사를 개최했다.

가상이 아닌 실제 세계에서 기술을 전시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리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삼성SDS는 이날 고객 및 업계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당신의 비전을 실현하라(Realize your vision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기술과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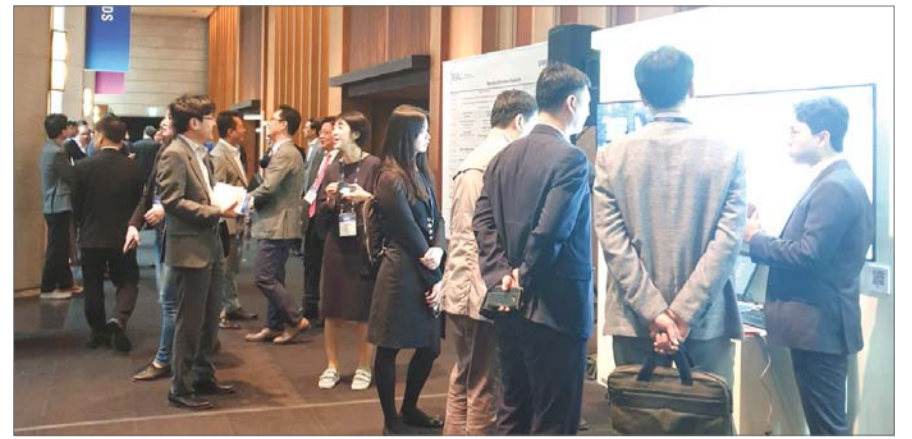
후원표 삼성SDS 대표이사(사장)은 행사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전환이 업계의 큰 화두이고, 경영 혁신을 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전환은 빠질 수 없다"며 "디지털 전환은 삼성SDS의 핵심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 연설자로 나선 홍 대표는 고객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한 해법으로, 삼성SDS '디지털전환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는 고객의 생산, 마케팅·영업, 경영시스템 등 전 사업 영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SDS의 업종 노하우와 IT신기술 역량을 집대성해 체계화한 것이다.

삼성전자 장시호 글로벌품질혁신실장(부사장)은 기조 연설에서 제조분야 디지털전환 추진 사례와 해외 파트너사의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해운물류 사업, 차세대 ERP를 활용한 운영 프로세스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삼성SDS 윤심 연구소장(CTO, 부사장)이 AI, 클라우드, 보안 등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또, 삼성전자 심은수 AI&SW연구센터장(전무)은 A

I기술 트렌드와 혁신 사례를,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천정희 교수는 삼성SDS와의 협업 사례와 동형암호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이 삼성SDS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듣고 있다. /구서윤 기자

또한 이날 행사에선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차세대 ERP/SCM/IPA 등), ▲인텔리전트 팩토리(제조/물류/플랜트 지능화) ▲클라우드·보안 ▲혁신기술·플랫폼(AI/블록체인/IoT) 등 삼성SDS의 핵심 역량을 주제로 총 25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외에도 참석자들이 기술 적용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텔리전트 팩토리, 브라이티스(AI·분석·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 기반 디지털전환 사례가 전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제조·물류·플랜트 지능화 솔루션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삼성SDS 전문가를 통해 상황에 맞는 현장 컨설팅도 받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LGU+, 中企 손잡고 'LTE-R' 고도화

〈철도통합무선통신〉

열차간·열차-관제 등 데이터 전송  
기술 진화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시작

LG유플러스는 자사 'LTE-R 종합 검증센터'에서 중소기업들과 함께 LTE-R 기술 진화를 이끌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LTE-R(철도통합무선통신)은 롱텀에볼루션(LTE)을 철도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노후화된 열차무선설비(VHF방식)를 개선해 달리는 열차간, 열차와 관제간, 유지보수자 상호간 필요한 음성,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프로젝트로 중

소기업들과 기존 및 신설 철도 노선에 적용될 LTE-R에 기술과 솔루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LTE-R 분야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LTE-R 종합검증센터'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LTE-R 종합검증센터는 올해 초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센터설비)와 대전 R&D센터(현장설비)간 장거리 전송망을 통해 구축된 최신식 LTE-R 시험센터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제 철도 운용환경과 100%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 센터설비를 탑재한 백팩형 이동기 지국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 각 지역 철도 운용 현장에 맞는 전파환경 측정과 통화시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중

동시동영상전송(eMBMS)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 통화량 폭주 상황에 대비한 그룹통화 서비스 시험과 검증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LTE-R에 관련된 교육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도 제공한다. 대전 R&D 센터에 마련된 교육장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TE-R 센터설비와 현장간 통신하기 위한 700메가헤르츠(MHz) 기반 기본 무선망 기술뿐 아니라 전송·네트워크·전원 분야 등 LTE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통해 협력사 및 고객사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력 고도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 LG전자 5G 스마트폰 'V50 씽큐' 내일 출시

LG전자가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ThinQ)를 오는 10일 국내에 출시한다. 이동통신 3사와 오픈마켓, LG베스트샵 등 자급제 채널을 통해 출시하며, 출고가는 119만 9000원이다.

LG전자는 정식 출시를 앞두고 8일부터 이틀간 LG V50 씽큐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LG전자는 예약 구매 고객이 LG V50 씽큐를 사용하다가 구매 후 1년 내에 액정이 파손되는 경우 한차례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전자는 LG V50 씽큐의 출시를 기다린 고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이달 13일까지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액정 무상수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LG전자는 첫 5G 스마트폰 출시를 기념, 6월 말까지 LG V50 씽큐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21만 9000원 상당

의 전용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을 무상 증정한다.

LG전자는 LG V50 씽큐의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시세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는 'LG고객 안심보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월 말까지 진행하며, 안심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LG V50 씽큐는 퀄컴의 최신 AP인 스냅드래곤 855와 5G모뎀(X50 5G)을 탑재해 5G 스마트폰으로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한다. 전작 대비 20% 커진 4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최대 2.7배 커진 방열 시스템 '쿨링 파이프'를 탑재, 고객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5G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LG 듀얼 스크린은 여담을 수 있는 플립 커버 안쪽에 6.2인치 올레드 화면이



LG전자가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ThinQ)를 오는 10일 국내에 출시한다.

있다. 고객은 LG V50 씽큐로 영화를 보는 동시에 LG 듀얼 스크린으로 출연배우, 줄거리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 화면 두 개에 게임과 컨트롤러를 각각 구현해 실감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구서윤 기자

## 삼성전자

### 英 B2B브랜드 5위로 '급상승'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B2B(기업간 거래)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브랜드분석 센터는 최근 '2019년 비즈니스 슈퍼브랜드 톱10'을 발표했다.

비즈니스 슈퍼브랜드는 품질과 신뢰도, 차별화 등을 평가한 지표로 순위를 매긴다. 현지 전문가 등 2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3200여개 브랜드를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지 브랜드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를 뒤따른 상위 랭킹이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2위를 차지했고, 항공사에 미레이트가 3위였다.

삼성전자는 2015년 이후 4년만에 톱 10에 다시 진입했다. 2014년 기록인 8위보다도 높은 역대 순위다. 지난해 16위보다 무려 11단계나 크게 상승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구글도 9위에 머무르며 삼성전자를 이기지 못했다. 그 밖에 페이스북(6위), BP(7위), 마스터카드(8위), 비자(10위) 등이 삼성전자 밑에 섰다.

앞서 삼성전자는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가 조사한 '2019 영국 평판 150대 기업'에서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SKT-인스타그램

### 디지털 광고 생태계 활성화 머리 맞댄다

SK텔레콤은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의 서비스인 스타그램과 함께 5세대(5G)이동통신 시대에 걸맞는 새 광고 기법을 활용, 디지털 광고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을지로 본사에서 SK텔레콤 하형일 통합서비스혁신센터장과 인스타그램 짐스콰이어스비즈니스&미디어 부사장이 만나 디지털 광고·마케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광고·마케팅 기법을 국내 적용 시 관련 내용을 서로 먼저 협의하기

로 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 사진·동영상을 24시간만 공유하는 기능인 '인스타그램 스토리', 세로형 동영상을 기본 제공하는 인스타그램의 동영상 앱 'IGTV' 등 서비스를 활용해 5G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가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 3월 SK텔레콤의 10대 중고생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데이터 소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해 왔다.

/김나인 기자